

Ἡ Ἰστορία τῆς Παλαιᾶς Διαθήκης: Ἡ ἱστορία τῆς Παλαιᾶς Διαθήκης

정원 이야기 2부 창세기 2:4-3:24

© 2024 케네스 매튜스 및 테드 힐데브란트

Kenneth Mathews 박사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4, 정원 이야기, 2부, 창세기 2:4-3:24입니다.

4회째는 정원 밖에서 일어난 일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세션인 1부와 2부에서 우리는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에덴동산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첫 인간 가족의 역사에서 일어난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2장과 3장에서 찾은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살펴보고 독자가 에덴동산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것은 14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심판의 실패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실패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명령의 의미에서 규범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중간 기간에는 지속적인 투쟁이 있을 것이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악인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성품을 따르는 의인을 통해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실패는 여자에 관한 것이며, 여담이지만 이 구절은 교회와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관해 많은 논쟁의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여자에 관한 심판의 실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내용은 민사적인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가족에 관한 것이며, 먼저 더 중요하게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과 가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상업, 기타 여러 분야, 의학에서 여성의 역할과 같은 사회에 관해서는 이것이 관련이 없습니다.

16절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나는 이것이 설명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곳이 없고, 결혼 생활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리고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 말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당신이 할 곳이 없습니다. 권면 곧 남자들에게 여자를 다스리라는 명령을 찾으라 사실, 당신이 발견한 것은 에베소서 5장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으로 대하라고 남자들에게 권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정반대의 경향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구절에서 아내는 존경을 나타내야 합니다. 남편을 향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질서는 1장과 2장에서 볼 수 있듯이 창조 규례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반전, 무질서가 있고 심판의 신탁이 재정렬되고 재구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직 구조, 균형, 대칭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그 개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찾은 것은 욕망의 의미와 규칙의 의미에 대한 논쟁입니다. 우리는 이 두 용어가 창세기 4장 7절에서 다시 발견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내가 욕망과 통치를 설명하기 위해 이 용어에 호소하는 이유는 그것이 같은 맥락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16절 앞부분이 자녀 출산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것이 성적 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4장에도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여기서 사용된 용어를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4장 6절을 보면,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벨의 제사와 예배를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는 반면, 가인의 제사와 예배를 거절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인은 이것 때문에 몹시 화를 냈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왜 화를 내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얼굴이 풀려있나요? 옳은 일을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7절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옳은 일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희 문 앞에 웅크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죄가 거주지의 출입구에 어떻게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웅크리고 있는 동물은 동물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는데, 죄는 동물처럼 당신의 문 앞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즉, 잘못된 일을 하여 동물을 선동하면 동물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개가 밖에서 무슨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뛰어올라 짖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현대적 이미지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당신의 문 앞에 웅크리고 있으며 당신을 덮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장의 언어가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죄이고, 욕망이며, 같은 말이며 당신을 갖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기 NIV 읽기를 다스려야 하며, 당신의 형제 아벨의 살해로 이어질 억제되지 않은 분노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그것을 숙달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이 4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16절에 묘사된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미래의 남녀 간의 투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것이며, 그것은 결혼을 통해 서로 관계를 맺고 가정에서 죄인이 되는 결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명령하려는 욕구가 아니라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위해 마련하신 축복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복종하는 사랑의 정신, 상호 애정, 목적의 연합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1장 28절에 출산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죄는 배우자를 압도하고, 이기고, 통제하려는 각자의 욕망, 즉 아내와 남편에 의해 지속되는 투쟁 대신에 사랑의 관계가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가장 심각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 그다음 두 번째는 사람에 관한 것이고, 다음으로 세 번째는 사실상 그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련인으로서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도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듯이 고통스러운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17절에서 땅은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놀라운 점은 14절에 나오는 뱀에 대한 저주와 땅에 대한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나 남자에게나 저주를 내리시는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남자와 여자는 구원받을 수 있으며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낡은 것이 아니며 여전히 진행 중이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중간 단계를 밟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형상대로 독특하게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에 대한 사랑으로 창조하신 인간 가족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은 4장에서 가인이 형상을 죽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인에게 저주의 심판을 내리시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 가지 심판의 신탁 각각 안에 희망, 소망, 희미한 빛, 뱀, 의도된 축복에 따라 자녀를 둔 여자에 대한 승리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환경과 땅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매우 고민할 것이고, 생산성이 있을 것이고, 음식이 생길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사람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것은 그가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브 사이에는 '살아있다'라는 말장난이 있고, 그다음에 그녀가 살아있다고 불리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문자 그대로 그녀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사람인 아담의 행위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중대한 후회와 회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믿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유산, 출산을 통한 가족. 그런 다음 우리는 훨씬 더 기후에 적합한 의복을 제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추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은 가죽, 곧 가죽으로 만든 옷인데, 이는 희생 제물, 즉 동물의 가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동물을 위한 희생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암시할 수도 있고, 내 생각에 창세기 이야기를 모세의 생애와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경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수용의 맥락에서 처음 독자들은 아마도 이곳이 에덴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속죄와 죄 용서를 위한 희생이 이루어지며, 대속 희생을 통해 화해가 가능해집니다.

나는 또한 우리가 이제 죄의 추세, 형벌, 그리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역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희망과 지속적인 축복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역입니다. 죄악과 어떤 경우에는 매우 지독한 사악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3장에서 범한 죄로 인해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원죄, 죄의 근원, 남자와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성격, 본성, 생각과 행동의 성향입니다. 그리고 물론 원초적인 죄책감도 따릅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에 숨었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동산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축복과 즐거움을 위해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피해 거기 숨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맞서시며 그들의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질문을 제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당연히 수치심과 죄책감을 드러낸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관계, 즉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실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이제 깨졌고, 창세기에서 암시하는 그 사랑의 관계도 상실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질문은, 이미지가 사라졌나요?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이는 정원 밖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썄, 이미지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그분의 형상대로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내가 그 형상에 인격이 포함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그들이 죄의 근원이 되고 그들의 후손도 원죄와 원죄의 상속을 받더라도 여전히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계획과 목적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자체 내에서 이미지가 손실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9장 6절에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나 인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6장부터 8장까지의 홍수 기록 이후에도 발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성을 언급하십니다. 신약성경에는 야고보서 3장 9절에 또 다른 표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혀로 주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가 매우 번덕스럽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누가 감히 인간을 저주하고, 거부하고, 범하고, 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미지는 손실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구약성경을 새롭게 볼 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나은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명예와 영광도 상실되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미지라고 하면 통치하는 인물인 왕족의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지를 설명한 1장에서는 내가 명예와 영광의 민주화, 즉 존재에 있어서 모두가 평등하다고 부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별과 연령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신체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인종, 즉 배경, 민족, 교육에 관계없이 모든 남성과 여성을 의미합니다. 즉, 남성과 여성을 인간으로 창조하는 데에는 실제로 계급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남자와 여자의 연합 안에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다양한 성적 역할에 필요한 다양성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1장 26절과 27절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아닌 남성과 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성과 여성은 개별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인간 가족을 위해 염두에 두신 축복을 성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문맥상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1장 28절에 나오는 생식과 출산은 그 축복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에는 남자와 여자가 언급되어 있으며, 그들은 출산에 있어서 역할의 다양성으로 인해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필수적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은 시편 8편을 잠시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창조 이야기를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동산에서 인류에게 부여하신 영광과 존귀를 언급할 것입니다. 그는 시편 8편에서 창조된 질서 전체의 광대함과 거대함, 경이로움을 대조한 다음 인류가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이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가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물론 두 가지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구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천사들이 천상의 구체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인간 이 조금 더 낮고, 물론 여전히 인간으로서 큰 존엄성을 갖고 있지만, 천사들의 천상 영역보다 조금 더 낮은 존재입니까?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 왕관을 씌우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왕족과 통치 인물에 대해 말한 것과 28절에 있는 축복의 일부인 남자와 여자가 모든 피조물에 대해 어느 정도의 통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반향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권위를 받았고 그에게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광과 명예로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그들의 발 아래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림에서 면류관, 보좌 위에 앉아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발 아래서 통치하는 통치권을 묘사한 것입니다.

7절, 모든 양과 소와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창세기 1장에 대한 시편 기자의 묵상입니다. 거기에 형상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안다고 가정하고 가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이 사라졌습니다.

형상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표준, 즉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출산과 통치의 임무를 부여하셨을 때 그들에게 부여하신 높은 지위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이해하게 되면 창세기를 통해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 가족의 반역으로 잃어버린 것을 대신하여 행동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서 2장에서 선택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히브리서 2장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시편 8편을 인용합니다. 진보적인 존재에 주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 나와 함께 히브리서 2장을 펴서 5절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겠습니다. 여기 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형제들, 곧 예수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즉 인간들이 어떻게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타락한 인류를 위해 완전한 인간이자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종으로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일을 성취할 수 없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주 예수님의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므로 5절, 하나님께서 내세를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장소가 있고, 물론 그 때는 장과 절이 없으므로, 어딘가에 오면 시편 8편을 옆두에 두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시는지. 이 사람을 돌보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자, 여기 히브리서 기자의 주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모든 것이 그분께 복종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를 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한 매우 중요한 표현이지만 대조적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해결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신 예수님에게서 발견됩니다. 그는 그의 인성, 부활한 인성,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곧 그의 생명과 부활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다시 그의 영광과 존귀를 나누십니다.

계속 읽어보면, 우리는 9절에서 그가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통치하는 인물로 오시는 대신에, 그의 자원하심과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발적인 굴복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으셨다는 놀라운 관찰을 발견합니다. 죽음을 겪으면서, 무슨 목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고 많은 아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는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미래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는지에 관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는 재림을 즐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왕국의 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공된 왕국을 받아들이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영광을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그분은 인간이 되셔서 이 현재의 악의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시기 전에 한때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존귀와 영광을 그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바울이 언급한 대로 나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타락,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모든 면에서 예수님 주위를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확고한 순종을 유지하시며 첫 아담이 하지 못한 일을 수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이 위대한 복음, 죄와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의 복음을 듣게 될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과 명예를 가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영광.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나누는 나의 영광, 아버지와 아들, 또한 나의 기쁨을 주소서.” 그러므로 잃어버린 것, 명예와 영광,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2절에서 그 사람이 이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수형으로 언급하시는 복수형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나는 잠시 멈추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된 질문, 즉 어떻게 한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 안에 복수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한 전체 질문을 다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 이것이 26절과 27절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26절에는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고 쓰여 있습니다. 복수형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7세가 되면 단수와 복수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6절에는 복수형이 있습니다. 27절에는 하나님의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도 나타나 있는데,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인류인 그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다양성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먼저 창세기의 맥락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문맥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 안에는 복수성이 있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2절을 다시 살펴보면서 적어도 물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단일한 연합 안에서 복수성을 이루신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음을 발견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삼위 일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복수가 있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의 다른 곳에서도 해당됩니까? 확실히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존재 안에는 하나가 있고, 또한 그분의 존재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복수의 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자체에서 복수성을 더 암시하고 암시하는 어떤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창세기 18장을 펴는 것인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명의 방문자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야영장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방문객들은 여행 중에 오고 있으며, 아브라함이 해야 할 것처럼 그분은 그들에게 쉴 곳과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환대를 제공하십니다. 그러나 창세기 18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날 더울 때에 자기 장막 어귀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큰 나무 곁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세 사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에 대해 말할 때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런 다음 10절로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저는 여기서 주님이 아마도 야훼를 언급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기 바랍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러면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 사람 중 한 분은 사실 주 하나님입니다. 13절에 “그러면 여호와여 이제 이는 확실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시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말하고 있으며 그 이야기는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여호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16절을 봅시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려고 할 때, 17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앞뒤로 이것을 보니, 앞뒤로 보면 그들의 모습이 사람인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이요 천사들이다. 19장에 두 천사가 나오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복수성, 즉 셋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남자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남자로 성육신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인간의 모습이 되셨을 뿐 아니라 온전한 인간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고, 또한 사람으로 보이는 두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의 단일성이 하나님의 다양성의 신비를 포함한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이는 계정 자체 생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고 성령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창조 이야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관련되어 있다는 암시가 있습니까? 글썄요, 창세기 기록에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감독에 중간 단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중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신약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조의 말씀에 포함된 하나님의 아들의 임재를 말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5절은 복음서 저자인 요한이 예수의 정체성을 반영한 것처럼 우리가 창조에서 발견하는 내용을 반영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장을 계속 읽으면 그가 예수를 말씀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논쟁의 여지 없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리고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신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존재 자체가 신적인 존재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중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셨습니다. 그 생명은 온 인류의 빛이었습니다. 빛이 어둠 속에 비취되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으뜸이시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장자 언어는 생물학적 언어가 아닌 법적 언어이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인의 삶에는 장자가 아버지의 계승자가 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맏아들은 사실상 아버지가 그에게 부여한 것을 맏아들로서 물려받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6절,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왕좌나 권세나 통치자나 권세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놀랍게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성령 못지않게 창조에 관여하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정원 밖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이것이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대 근동의 신들과 여신들의 특징인 다신교 사이의 차이에 관한 것이며, 신약 성서의 히브리어 성경이 계속하고 확증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오늘날의 종교에 가면 신은 비록 다신교는 아니지만 신은 한 인격, 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은 창조 후에 옵니다.

그러므로 다신교가 있는 고대 근동에서는 인간의 상상을 조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교와 같은 종교의 경우, 그가 창조물에 대한 사랑을 행사하기 위해 창조해야 할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영원하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이것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특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받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수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즉,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는 사랑과 지식을 추상적인 방식으로, 단지 사고와 관념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에 대한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특징적인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곧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품은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넘쳐흐르고, 밖으로 향하고, 그분 자신 안으로 향하는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본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 유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으는 것은 하나님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당신은 그를 커넥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 자체라고 말하기가 꺼려지는데, 그 사람이 사람일 때는 그게 사랑인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고려하면 우리에게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받는 분이 계시고, 사랑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향한 자비와 사랑으로 인해 인류를 위해 갖고 계신 목적이자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 전능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착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사랑의 시작인 권유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사랑의 화해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세션에서 우리는 정원 밖의 삶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Kenneth Mathews 박사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4, 정원 이야기, 2부, 창세기 2:4-3:24입니다.